

## 「中國속의 韓國」 1次見學團

東亞日報文化센터 주최로

東亞日報文化센터(汝矣島洞 別館)는 韓民族이 운영하고 있는 延邊市 延邊日報社와 제휴, 光復會 후원으로 지난 8월19일~28일까지 10일간 1次 「中國속의 韓國」 獨立運動유적지 견학단을 모집코 파견했다. 견학단은 威海, 長春, 延吉, 龍井, 白頭山, 圖們, 北京, 西安, 上海 등에서 中國의 文化유적과 우리의 독립운동유적(현지설명: 국민대 趙東杰 교수)을 살피고 延邊大에서는 독립운동사 전공교수인 동대학 朴昌暉 부총장의 강의를 듣는다. 총비용은 132만원. 2次모집은 아직 未定이나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 中國文化시찰단 8.24 出發

本會가 공모했던 시찰단은 사정에 의해 중단  
五道신문社 주최, 2次는 9月30日 豫定

五道新聞社(서울 鍾路區 平倉洞 66·電 358-3102 ~5)서는 민족정신고취와 中國文化유적지 답사와 백두산 탐방을 위해 8박9일 예정인 中國문화시찰단 1차분 40인을 8월24일 출국시켰다.

동사에서는 9월30일에 2차 시찰단을 출국토록 하고, 10월3일 白頭山에 올라 開天節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3次모집은 來年 5월에 계획

3차시찰단 모집은 내년 5월에 있을 것이라는데 자세한 내용은 동신문사 장운영취재부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謝過말씀) 본회는 회원사인 (주)大韓旅行社와 제휴하여 中國延邊大 학술세미나와 中國文化 紀行會員을 모집하였던바 제2코스인 유적지 답사에는 희망자가 1명뿐이고 제1코스도 인원이 너무나 적는데다 협회의 사정도 겹쳐 8월10일 출발예정으로 모집한 본회 회원의 白頭山 등반 및 연변대학세미나 여행계획은 신청회원의 개인사정과 연기도 불가능케 되어 부득이 취소케 되었음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朴七星支部長과 南周鎬會員만 參加

본회는 신청회원중 七甲山지부 朴七星지부장은 단장이 되고 南周鎬회원(세무사)은 총무로 선임되어 8월24일에 출국하게된 五道신문사 주최의 백두산 탐방 및 中國문화유적답사 여행이 무사히 이루어지도록 주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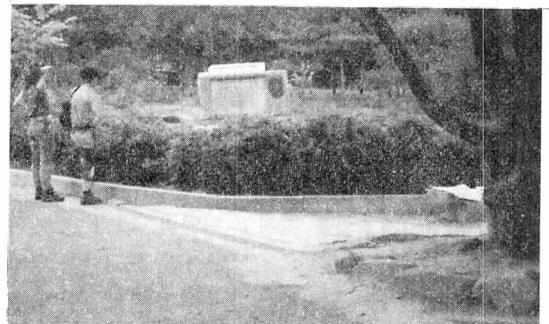
## “우리네 것 저네들 것”

省庵 李和永씨, 隨想集 펴내

36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혼란 혼·표창하나 없이 야인으로 돌아왔으나 그것보다 더 값진 교훈과 가치관을 깨달았다는 저자 省庵 李和永씨(本會 代議員·한국중기협회상근 부회장)의 말이다. 軍생활, 정보기관, 청와대, 건설부국장, 외교관, 住公부사장을 편력하면서 외국여행이 잦았고 느낀 것도 많아 담담한 마음으로 쓴 것들이다. 寶晉齋 出版社刊. 값 3,700원.

## 햇볕 보게된 “金洙暎詩碑”

68년에 작고한 고 金洙暎시인의 시비가 23년만에 유택이 있던 도봉산 성황당자리에서 지난 4월2일 도봉산 書院터앞 양지바른 풀밭으로 옮겨졌다. 유택이 옮겨진후는 풀숲에 가려진 것을 안타깝게 여겨온 김장호시인(東大 교수)을 비롯한 文友들과 유족들이 국립공원당국에 진정하여 밝은 곳으로 옮겨져 지난 6월16일 23주기일에는 많은 文人들이 찾았으며 8월7일에는 가족들이 잡초를 뜯고 나무도 심었는데 매년 공원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아 조경을 할 것이라 한다. <사진: 도봉산書院터앞의 金洙暎시비>



▲北漢山 도봉산서원터 못미처 있는 녹지대로 옮겨진 김수영시비.

## 韓國植物검색圖鑑 出刊

植物의 꽃과 잎모양만 알면 사진이나 옥편에서 글을 찾듯 植物名과 생태를 알 수 있게 만든 「한국식물 검색도감」(高庚式 지음)이 나왔다. 草本과 木本으로 大別하고 草本은 다시 봄, 여름, 가을로 나뉘었으나 木本은 季節구분이 없다. 기존 식물도감은 科를 기준으로한 전문가용이 대부분으로 일반인의 이용이 어려웠다. 申裕恒씨가 쓴 「한국나비도감」을 포함하여 全5권인데 한질값이 13만원. 아카데미서적刊.

## 10月の 文化人物 周時經선생 選定

文化部는 10月の 文化인물로 한글研究의 선구자인

周時經선생을 선정했다. 동부는 10월9일 한글날과 관련 周선생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중이라 한다.

周선생은 1876년 황해도서 출생, 조선어연구회를 창설하는등 전생애를 통해 한글연구와 발전을 위해 노고를 다했다.

## 批評言語와 宇宙意識

崔光烈(本회회원) 評論集 出刊

崔光烈에세이集(80年) 韓國自然論(81年) 韓民族史와 思想의 源流(87年)에 이어 지난 6월 오랜침묵을 깨고 「批評言語와 宇宙意識」 4×6배版 348면을 펴냈다. 의식사刊 값 5,500원

## 거미줄 (1)

## 韓國造景聯, 帽兒山開發계획 참여具體化

吳輝泳교수(本會學術副會長)가 主軸

韓國의 「과학기술」이 中國 吉林省·延吉市の 한 대단위지역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韓國造景聯合會(會長:吳輝泳·漢陽大 環境과학 大學院 교수·本회 學術副會長)가 주축이 되어 연변 조선족자치주 및 延吉市와 공동으로 연변공항에서 5km가량 떨어진 帽兒山일대에 1천5백60ha 규모의 종합레저 및 자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구체화 되고 있다.

韓國造景聯合會는 지난해 8월 延吉市로부터 모아산개발사업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요청받고 1년간의 작업끝에 최근 최종보고서를 延吉市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모아산에는 민속마을, 자연및 민속사박물관 상가, 호텔및 여관수영장, 스키장등 종합레저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근래 두만강변개발, 백두산의 관광객 증가등으로 연변을 찾는 외래객이 크게 늘어 여러해 전부터 모아산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해왔으나 이 분야에 대한 고급두뇌및 노하우등이 없어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던중 지난해 吉林省 延吉園林處와 한국조경연합회가 모임을 갖는 기회가 있어 그때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동안 연길시측은 두차례에 걸쳐 한국측에 기초 자료전달을 위해 관계자를 파견했다.

한국조경연합회는 8月19일부터 23日까지 연길시에서 열린 한민족과학자국제학술대회 기간중 모아산 개발기본계획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및 延吉市건설위원회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도 갖고 최종보고서 검토 및 향후대책등을 협의했다.

이 회의에서 중국측 관계자들은 기본계획에 만족을 표시했고 자국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모아산 개발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조경연합회가 계속중인 이같은 기술지원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에 대한 韓國의 첫지원사례여서 앞으로 예상되는 한국·연변과의 상호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延吉市당국과 모아산 개발계획을 협의한 吳輝泳한국조경연합회장은 「그동안 연변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여러가지 약속을 했으나 후속사업 추진을 안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延吉市를 돕기로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제출했다」고 말했다.

吳회장은 延吉市관계자가 계획내용에 만족해 하면서 자금조성에 대한 지원도 기대하는것 같았다고 말하며 「한국기업들이 백두산휴양지 건설진출등에 대비, 이 계획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91. 8. 28>